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전완준 화순군수

“살맛나는 ‘테라피 화순’ 건설”

“소통행정·생활행정으로 ‘테라피 화순’을 완성하겠습니다.” 전완준 화순군수가 ‘중단 없는 화순발전’을 위해 민선 5기 군정운영 방침을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두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을 적극 펼쳐겠다고 밝혔다.



원·암센터 및 백신연구소·전남대의생명과화학센터, 노인전문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군수는 또 세계적인 연구기관 독일 프라운호퍼 IME 한국 연구소를 화순에 유치, 백신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화순을 아시아 최고의 생물의약품 및 백신원료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계획도 밝혔다.

맞춤형 소통·생활 행정으로 중단 없는 화순발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애플 백신 허브 조성

통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생활행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문에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생활행정을 적극 발굴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만족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해 ‘테라피 화순’이라는 보건의료관광·체험관광·그린관광·농촌관광 시대를 준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민선 5기 가장 중요한 군정 목표로 아시아 백신 허브 조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전 군수는 생물 의약 연구센터·녹십자 백신공장·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GLP)·우수한 약제 유통지원시설·화순 전남대병

이 밖에도 전 군수는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에 맞게 3개 권역별로 개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부권은 화순온천·백아산 자연휴양림·모후산 고려인상 시원지 및 생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서부권은 운주사·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도곡온천을 연계한 벨트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중부권은 보건·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테라피 엑스포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의료관광·체험관광·농촌관광·그린관광의 메카로 육성할 구상이다. 전 군수는 “예산 5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고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룩하게 돼 화순 융성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빛더미 앓은 나주시 또 빛내서 사업

650억 영산강 우회도로 시비로 추진 시민 1인당 200만원 풀...국비 절실

나주시가 민선 4기에 지방채를 비롯해 민자유치로 1200여억원 가량을 빚진 상태에서 또다시 65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가로 빚을 내 추진, 차질 민선 5기 중·장기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7월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나주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592억 7000만원으로 향후 20년간 원금과 이자로 매년 30여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 지난해 687억원이 소요

되는 민자유치 사업인 하수관거 BTL 사업을 발주해 오는 2013년부터 20년간 추가로 30억원 내외를 상환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지난해 650여억원이 소요되는 영산강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순수 시비로 추진, 전체 빚이 1900여억원 가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민선 5기 재정이 악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로 이 경우 지방채 상환시와 순 시비 투자의 상황이 맞물릴 경우

나주시의 영산강 우회도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투자돼 자체적인 심사만을 거친 경우라며 투·융자 심사의 제도적인 결함까지 지적했다. 시민 K씨는 “나주시 빚이 1900여억원이면 시민 1인당 200여만원 가량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채가 많으면 결국 그 책임은 차기 시장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의 경우 2008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3.5%로 전남 22개 시·군을 비교해 부채비율이 약간 높은 12위 정도이다”며 “문제가 지적된 만큼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 영산강 우회도로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꽃망울 터뜨린 백련. 강진군 성전면 금당마을 어귀 연못에 백련(白蓮)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마을주민들은 3년 전부터 친환경 농업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백련을 식재했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의장 김덕중 영암군의장 박영배 장성군의장 김상복 장흥군의장 황월연



나주시의회는 7일 제6대 전반기의장으로 김덕중(59)의원, 부의장으로 정찬열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영암군의회는 전반기 의장으로 5선의 박영배(62) 의원, 부의장에 김연일의원을 각각 뽑았다. 장성군의회는 의장에 김상복(55)의원, 부의장에 김형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장흥군의회도 의장에 황월연(56)의원, 부의장에 김화자 의원을 각각 뽑았다.

장성 꽃감 명품 브랜드화 박차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연구용역 보고회

장성군이 지역특산품인 꽃감의 명품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6일 군청회의실에서 장성꽃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비 2200만원을 들여 1년간 ▲장성꽃감에 대한 기초조사 ▲지리적 환경 ▲상품의 본질적 연관성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장성 꽃감의 품질과 명성·브랜드 개발 등 특산품에 대한 권리 확보는 물론 꽃감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장성 꽃감을 국내를 대표하는 꽃감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꽃감은 대봉시로 만들어 맛이 좋고 당도가 뛰어나며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은 최적의 자연조건에서 건조돼 타지역 꽃감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담양 ‘레드 멜론’ 인기

속 붉은 색·향 짙고 과즙 풍부 80농가 25h재배 年 20억 매출

친환경 농업의 메카를 꿈꾸는 담양군에서 이색적인 붉은색 멜론이 생산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담양군에 따르면 무정면과 수북면 80여 농가가 25ha에서 ‘레드 멜론’을 재배해 연간 2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양군 반딧불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레드 멜론’은 겉은 일반 멜론과 같지만 속이 붉은 색을 띠는 적육계 멜론으로 향이 짙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반딧불작목반 김복남 총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모양과 당

도 등 기준을 통과한 최상의 생산품만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 멜론은 지난해 멜론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ISO 9001(품질경영)과 ISO 14001(환경경영)을 동시에 인증받았다.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 P 010-4608-3700.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by region (Gwangju, Jeonnam, Jeonbuk, Jeonju, Seoul).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by region (Gwangju, Jeonnam, Jeonbuk, Jeonju, Seoul).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by region (Gwangju, Jeonnam, Jeonbuk, Jeonju, Seoul).

대인동심부동산 (FAX)223-1772.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by region (Gwangju, Jeonnam, Jeonbuk, Jeonju, Seoul).